

이번 주말에는 형과함께 배드민턴을 치러갔다. 나와형은 배드민턴 라켓과 셔틀콕을 들고 호반베르디움에 있는 농구장에 갔다. 이 농구장에는 배드민턴 치는 곳이 있어서 여기서 치기로 했다. 그다음에 라켓을 잡고 이제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했다. 배드민턴은 재미있었다. 못칠것 같았는데) 쳐질 때도 있었고 칠수 있을것 같았는데 못쳐온 때도 있었다. 그렇게 배드민턴을 치고 있으니 갑자기 친구가 왔다. 친구는 경찰과 도둑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친구가 오니까 못해지겠 것 같았다. 그리고 친구가 가고 나서 다시 배드민턴을 쳤다. 나는 예전에는 공이 아래쪽으로 오면 치지 못했는데 이제 칠수있게 된거 같았다. ☆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오셨다 나는 깜짝 놀랐다. 아빠가 말했다. ☆ "아빠는 닥트 다니올테니까 조급하고 재빨름쓰레기 통들고 들어가" 우리는 말했다. "네~" 그리고 5분정도 배드민턴을 쳤다. 근데 갑자기 아빠가 다시 오셨다. 내가 물었다. "왜 이렇게 빨리오셨어요?" 아빠가 말했다. "지금 20분 정도 지났는데 무슨소리야." 시간을 보니 진짜 15분정도 지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랜만에 배드민턴을 해서 재밌었다.